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부와 명성, 명예에 권력까지 이 모두 것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할까? 행복은커녕 더 불행하고 피폐된 삶을 사는 경우도 많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고갈되고 더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까닭은 이 조건들이 저절로 행복을 선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술 더 떠서 상상조차 어려운 만큼 부당하게 유리한 물질적·사회적 조건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루를 걱정 없이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

타고난 조건과 과분한 소유가 정작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 볼프강 괴테(1749~1832)다. 괴테는 세계 최고의 작품에 속하는 ‘파우스트’를 쓴 작가로 과학자이자 철학자이며 동시에 정치가이기도 한 독일의 자부심이다.

그는 82년이라는 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배낭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

사후에나 겨우 평가받았던 많은 천재들과 달리 생전에 세상의 추앙과 환호를 받았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불시에 찾아오는 삶의 위기는 괴테 그마저도 비껴가지 않았다.

괴테는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지독한 위기감과 맞닥뜨렸다. 그는 이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둬 작가로 유명해졌고, 바이마르 공국(公國)의 재상으로 10년째 일하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오른 상황이었다. 오죽하면 그를 ‘주피터’에 비유하며 한번 만나 보기를 간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을까. 젊은이들은 베르테르가 입었던 옷을 따라 입었으며 ‘베르테르 중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바로 이런 때 괴테는 더 이상 자신이 행복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밖으로는 눈부신 성공을 거뒀지만 자신의 내면은 파헤쳐졌고 쌓여 가는 것은 공허와 정신의 무기력함이었다. 결국 괴테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한다. 여기에 탁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렵사리 외적 성공을 거둔 뒤에는 이 성공을 지키고 더 높이 쌓아 올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포기한다. 괴테는 반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 올린 성공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이 여정의 기록이 바로 유명한 ‘이탈리아 여행기’다.

당시 재상직을 맡고 있던 괴테는 1786년 37세 되던 생일날이었던 9월 3일 새벽 세 시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이탈

리아로 떠났다. 그의 여행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새벽 세 시에 나는 카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놔주지 않았을 것이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말 한마디 없이 배낭 하나 달랑 챙겨 들고 길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다’고 쓰고 있다. 자신이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음을 절감했던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리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결행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를 독하게 결심하고도 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익숙한 것, 편한 것들을 내려놓는 일은 지금까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경계의 얼굴은 두 개다. 안과 밖을 나누고 안을 보호하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는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괴테가 넘어서는 자신을 극복하는 한계였다. 그는 작가로서 누리는 드높은 명성과 10여년의 정치가 생활이 행복과 성숙 대신에 ‘육체적, 도덕적 폐해’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 성공에 익숙해지면서 삶은 차츰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신의 에너지는 바닥이 드러나게 고갈되었으며, 내적 혼란은 더 커졌다. 한마디로 사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재미없는 반복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 위기에 직면한 괴테는 무기력하고

피폐된 모습을 감추는 대신 ‘다시금 살아 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 여행을 결행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갈망하던 ‘제 2의 탄생’에 도달한다. 그의 ‘이탈리아 여행’이 삶에서 한순간 방향을 잃은 많은 사람에게 필독서인 이유다.

자기 성장과 발전은 우리를 둘러싼 경계를 보는 눈에 달렸다. 경계를 보호막 삼아서 안주하는 삶에 성찰과 성숙이 있을 수 없다. 낯 보기에는 제어무리 좋은 조건도 자기도취와 오만, 그리고 나태의 늪에 빠져서 사는 사람에게는 기껏해야 파멸로 가는 계단일 뿐이다. 요즘에 믿기 어렵게 야만적인 ‘감찰’로 퍼뜨려진 차별 일가의 모습에서 보듯이 말이다.

반면에 분단 이후 우리 모두의 정치·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며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남북의 경계선을 얼마나 쉽게 유쾌하게 넘을 수 있는가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절이 바로 요즘이다.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경계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미줄 같은 한계의 선(線)들이 사실은 착각에 불과하며, 머릿속에만 있는 허상의 그림자였던 것일까. 온몸을 누르는 타성의 짐들을 일단 내려놓고 배낭 하나 둘러메고 우리 안의 경계를 넘어 보자. 거기에서 분명 새로운 길이 시작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박 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누구라서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울컥하는 마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랜 세월 이어진 한민족이라는 DNA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의 모든 사람들, 해외 동포들의 기대와 염원이 응집된 자리였습니다.

두 정상이 밝고 반가운 얼굴로 군사 분계선을 왕래하고 첫 답사를 나누며 시작된 아름다운우먼들도 과거적인 모습은 회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시대가 열린다

담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적 출발점에서’라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삼강목 글귀, 한라와 백두의 흠으로 삼고 한강과 대동강의 물로 뿌리내리게 한 1953년생 소나무,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이 새겨진 표지석, ‘동근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남북 정상의 다짐. 그 하나하나가 온겨레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가슴 벅차게 했습니다.

긴 시간 회담 끝에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이처럼 벅찬 겨레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라는 대전제가 놀라웠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민족 자주성의 원칙하에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을 이루겠으며, 둘째, 상호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고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셋째, 불가침 합의를 준수하고 군축하며, 올해 정전 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하는 등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세부적 합의 사항은 위와 같은 대전제를 뒷받침하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화해 분위기를 이여기기 위해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명기되었습니다.

발해를 꿈꾸며, 하나의 봄, 하나의 꿈 하나의 코리아(One Dream, One Korea)가 연주된 환송 행사를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사라지는 세계사적인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만주 평판을 날리던 우리 선조의 기백도 되찾아 웅비(雄飛)할 수 있지 않을까. 가슴 뜨거웠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두 정상이 이구동성 한 것처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면서요,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가시밭길이 내다보인다는 것을 모든 겨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노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적 의무이자, 몫이기도

합니다.

다만, 함께하는 이가 좋으면 먼길도 가볍게 느껴지고,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법률가로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해야 할 몫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일처럼 통일 법제를 미리 준비하거나,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예상 가능한 법적 분쟁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싶습니다.

주말 내내 가슴이 벅차고, 구름을 걷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좋은 시기를 허투루 놓칠 수는 없지요. 다시 내 조국 대지에 발을 굳건히 딛고, 차분히 한걸음, 한걸음 걸어야겠습니다.

두 정상이 만찬사에서 말한 것처럼 머지않아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신작로를 내어 왕래하고,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그날이어서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두 정상과 관계자들께 민족의 염원인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더 주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고



손 명 동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시작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1의 시간이 흘러 모든 새로움이 아름다운 계절, 봄이 지나가고 있다. 그 속도는 너무나 빠르기에 한때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다. 그만큼 귀중한 계절이기에 여든가 모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 보면 더욱 좋을 듯하다.

몇 해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었던 사자성어가 있었다. 바로 ‘새옹지마(塞翁之馬)의 유래’였다. 새옹지마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는 말로 한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생의 굴곡화복은 변화가 많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색되었던 사자성어로는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는 뜻의 전황위복(轉禍爲福)이었다. 인간의 굴곡화복은 예

‘새옹지마’에 대하여

측할 수 없는 것이니 일시적으로 화가 닥쳐도 절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새옹지마와 유사한 뜻으로 쓰여 인생의 지혜를 일깨워준다.

즉 ‘새옹지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길한 일이 있으면 복도 오듯이,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마침 필자의 지인으로부터 보내온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글이 있어 함께 공유해 본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가치’로 그 내용은 이렇다. 워싱턴 D.C. 지하철 랑팡역.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한 지 6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벽에 기대어 음악을 들었고, 43분 동안 일곱 명이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1분 남짓 지켜보았다. 스물일곱 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은 32달러 17센트였다. 다음날 신문을 펼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던 청년은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43분 동안 멋진 연주를 했다. 그

러나, 현장을 오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지나갔다. 이 공연을 제언한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인이 일상에 쫓겨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렇다. 우리들은 진짜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러한 것에 돈을 쓰고 있기는 한 걸까? 세상에서 가장 재능 있다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코 앞에서 연주하고 있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우리는, 혹여나 더 많은 소소한 아름다움들을 매일매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깊이 있는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필요할 듯 하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새옹지마의 결론은 인생사 흥하고 망하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덧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고 싶다. 먼저 새옹지마가 주는 교훈으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변을 살피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형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복이 들어오면 맑게 웃으면서 받아 함께 나누고, 화가 닦히면 슬픔을 표현하되 반으로 나누는 삶, 복 이후에 다짐 화를 생각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지금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은 어떻게.

로 역동적 변화를 일궈 낸 4·19혁명이거나 통일을 지향했던 민중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제주 4·3항쟁도 마찬가지다.

이제 4월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 달로 기억될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 지도자로는 처음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문 대통령 또한 김 위원장의 감격 제안으로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남북 정상은 는 의미다. ‘경계’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

社說

‘판문점 선언’ 실현될 수 있도록 한미 공조를

엇그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 나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됐음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선언적인 문구에 그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많다. 이제 공은 오는 5월말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미회담으로 넘어갔다.

다행인 것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언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한미 전문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점은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장면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장 폐쇄 발표가 하언이 아니라는 점을 북미 답답에 앞서 보아줌으로써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완전하고 과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판문점 선언이 비록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세분화된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비핵화 이전에도 보상은 없다’는 입장을 흔들 건지해 왔다. 북미회담 결과를 선별된 예단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문 대통령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행 과정의 로드맵이 합의된다면 종전 선언과 평화 체제로의 전환 문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가 긴밀한 한미 공조와 함께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산가족 상봉 규모 늘리고 정례화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을 가장 반긴 사람들은 아마도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일 것이다. 두 정상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3년 만에 다시 만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은 엇그제 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해 “남과 북은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 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상봉 신청자 추첨과 생사 확인, 상봉자 명단 확정 등 준비 절차를 감안하면 남북 적십자회담은 이르러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과 함께 서신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통계를 보면 지난날 말 현재 이산

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1531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5만7920명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생존자 중 64.2%가 80세 이상 고령이어서 시간이 없다. 실제로 매년 3000여 명의 실형민이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숨지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까지 20차례의 대면 상봉에서는 이산가족 1만9771명이 만났을 뿐이다.

광주·지역 신청자도 1347명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1000명 가까이 줄었다. 이산가족의 아픔과 한을 고려한다면 남북은 100~200명 수준이었던 상봉 가족 규모를 대폭 늘리고 상봉 행사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화상 상봉이나 생사 확인도 병행해 좀 더 많은 실형민들이 그리운 가족의 얼굴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경계에 서 있으면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미래로 몸이 기운다.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을 한탄하지 마라. 내가 그저 한쪽을 지키는 성실한 투사임을 한탄 해라. 경계에 서 있는 상태를 자유롭게 독립적이라고 한다. 자유롭고 독립적이어야만 창의적이고 혁명적이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저서 ‘경계에 흐르다’에 나오는 내용이다. 변화라는 것은 연속적인 경계에 의해 견인된다는 의미다. ‘경계’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

오며 앞으로 한반도의 역사는 새롭게 쓰일 것이다.

다시 철학자 최진석이의 말을 인용하자면, 경계에 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 “두 면을 동시에 장악하거나, 두 면 사이의 경계에 처하지 않으면 전면적 인식이나 진보적 삶은 구현되지 못한다. 한쪽을 택하면 과거에 박히고, 경계에 서면 미래로 열린다.”

우리 앞에는 무수히 많은 경계들이 놓여 있다.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턱들이 다. 그러나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 비로소 변화와 함께할 수 있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경계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 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